

삼시외끼, 어디까지 즐겨봤소



제 12회 황성한우축제
30일~내달 4일 섬강둔치

강원

대한민국 간판 축제 황성한우축제가 올해로 열두 해째를 맞이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닷새간 황성 섬강둔치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우'다. 황성한우가 황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삼시외끼 황성한우, 어디까지 먹어봤소?'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축제는 '맛' 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올해 황성한우축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황성한우축제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머슴들리기 대회' 모습.

한우 테마목장 체험구역·건초더미 놀이터·머슴들 들기대회
씨름대회·고고장·화려한 야간조명 속 펍·족욕장·문화공연
수익금 일부 상품권 증정...맛과 멋의 향연 속 세계인의 축제

◇황성한우 제대로 알자
황성한우축제의 핵심은 황성한우를 알리는 것이다. 황성한우 주제관을 확대 개편해 황성한우의 유래와 우수성을 알리는 최적의 홍보 공간이다. 한우의 모든 것을 담았다.
한우 설명집인 황성한우축제 스토리북도 눈길을 끈다. 소 발갈이 체험, 외양간 체험, 한우 놀이터 등에서 한우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며 우리의 농경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황성한우를 먹고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나올 법도 하다. 결론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축제장 내에서 황성한우만 취급하고 있고, 상시 한우감시단이 실제로 황성한우만을 취급하는 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황성한우축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고기만을 주제로 한 셀프식당을 운영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 길이만 무려 145m에 달하며, 1,000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즐거거리도 있다
단순히 먹거리만 즐비한 축제는 가라!

올해 황성한우축제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우선 테마목장을 주변으로 350m에 이르는 체험구역이 가장 먼저 눈에

민다. 전통과 현대 놀이기구가 한데 어우러져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핫 플레이스(Hot Place)다.

한우의 먹거리인 건초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변신한다. 10m 높이의 황성한우 에드벨튼은 어디서나 여기가 축제장임을 알린다. 또 관광객이 한우인형풍선을 쓰고 축제장을 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면 무도회가 펼쳐진다.

LED를 활용한 야간조명은 늦은 밤에도 축제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다. 황성한우 안주와 맥주로 수려한 섬강을 즐길 수 있는 PUB(펍), 족욕장이 운영되고, 매일 밤마다 문화예술공연의 향연이 펼쳐진다.

지난해 처음 선보여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머슴들 들기 대회는 올해 무제한 시간제로 변신을 시도했다. 한우 탈 씨름대회는 올해 축제를 빛낼 새로운 아이템.

추위를 감수하며 한우가면을 쓰고 신나는 댄스를 즐기는 '추억의 고고장'이 운영된다. 올해 처음 신설된 한우퍼레이드는 축제장 뿐 아니라 황성을 시가지에서 열려 관심을 모은다. 민족사관고 학생들의 대취타 연주를 필두로 재미있는 분장을 한 축제 참가자들의 행진은 황성군 전체가 들쭉날쭉 정도의 메인 이벤트다.

◇알뜰하게 누리자
올해 황성한우축제에서는 처음으로 상품권 제도가 도입됐다. 수익금의 일부 등을 고객에게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상권이 활성화와 고객의 즐길 거리를 보다 풍성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상품권은 축제장 뿐 아니라

황성전통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 방문자가 축제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장 스탬프는 올해 축제의 백미로 손꼽힌다.

SNS 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오랫동안 황성한우축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받을 수 있고, 한복을 입고 축제장을 돌기만 해도 상품이 외르크 쏟아진다.

원팔원 황성한우축제추진위원장은 "최고의 맛과 멋의 향연이 펼쳐질 황성한우축제에서 삼시외끼 맛있는 황성한우도 맛보고 즐거운 체험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2005년 부산 APEC에서 황성한우 맛을 본 부시 미국 대통령이 '원더풀(Wonderful)'을 외친 일화는 유명하다. 황성한우가 세계화로 가는 발단인 셈이다.

황성한우를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 일환으로 2009년도에는 캐나다우육수출협회(CBEF)의 연례마케팅 세미나에서 비교사식 평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황성한우의 세계화를 위해 2010년 4월 15일 세계 61개국 110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G20 세계 정상회의에 황성한우가 공식 납품되는 등 황성한우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올해 홍콩에 황성한우 고기가 처음 수출돼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있으며, 중국 주청시에서도 황성한우 육가공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에 황성한우를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황성한우축제에서 서포터즈 6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내 외국인 직원 20명이 방문해 황성한우를 맛보고 모국에 그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하남윤 강원일보 기자

'한우의 한류' 황성한우

청정하고 깨끗한 물·일교차 커

육질 단단하고 마블링 잘 형성

"육즙이 풍부해 감칠맛 나고 부드러우며 씹는 맛이 좋아요."
황성한우를 접한 미식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예로부터 황성의 우시장은 '한양 4대 문 밖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한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곳이다.

청정하고 깨끗한 물, 높은 일교차는 한우의 육질을 단단하게 하고 마블링이 잘 형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황성을 고급육 생산에 적합한 명품 한우 고장으로 만들었다.

축산농가 역시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혈통, 사육, 가공과정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황성한우 전용 도축장에서 도축·가공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된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혈통 정립과 우수 유전자 개발, 고품질의 균일화 노력 등이 황성한우 브랜드를 만든 원동력이다.

이 같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12년 연속 우수축산물인증, 9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대표브랜드 대상 등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최고의 브랜드로 부상했다. 황성한우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황성한우고기에 대한 황성군수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황성한우로 도축되는 한우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조례로 정한 기준에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품질인증개체 확인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누구나 믿고 진짜 황성한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수출이 이뤄진 홍콩에서도 '황성한우'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이 같은 브랜드 파워 전략에 따른 차별화 덕분이다.

/하남윤 강원일보 기자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